

진다이지(深大寺) 산책 맵



조후시 관광협회 ☎ 182-8511 東京都調布市小島町 2-35-1 ☎ 042-481-7183 FAX 042-481-6881 진다이지 관광안내소 ☎ 182-0017 調布市深大寺元町 5-12-

042-481-7183 FAX042-481-6881

다이지 관광안내소 〒182-0017 調布市深大寺元町 5-12-7

8 & FAX 042-488-309

2025년 3월 개정판

진다이지(深大寺) 투어

역사적 배경 : 진다이지(深大寺)는 1300여년전 덴표(天平) 시대에 창건되었습니다. 개조는 중국에서 배운 범상종 불교승인 만쿠(滿功)상인. 100여년 후인 9세기 세이와 천황 시대에 천태종(天台宗)의 승인 에료(惠亮)가 교토 북동쪽에 있는 히에이잔(比叡山) 엔랴쿠지(延暦寺)에서 (주지로) 임명되었습니다. 에료는 진다이지의 명성을 높이는 데 평생을 바쳐 천태종의 주요 사찰 중 하나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진다이지의 이름은 수신인 진자(深沙) 대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중국 불교의 고명한 순례자인 현장(玄奘)이 인도를 향해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던 중 사막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꿈에 신이 나타나 격려했다고 합니다.

진자(深沙) 대왕은 결연의 신입니다 : 전설에 따르면 만쿠(滿功) 상인 아버지인 후쿠만(福満)은 촌장의 딸과 사랑에 빠지지만 그 딸은 부모에 의해 작은 섬에 격리되어 버립니다. 그때 후쿠만이 진자대왕에게 열심히 기도한 결과 성스러운 바다거북이 나타나 그를 작은 섬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을 좋은 일의 징조로 본 촌장과 그 아내는 딸과 후쿠만의 결혼을 인정합니다. 그 후 태어난 것이 개조자의 만쿠상인입니다. 그는 결국 절을 짓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진자대왕을 모시기 위한 절을 지었습니다.

진다이지는 아사쿠사에 있는 센소지(淺草寺)에 이어 도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내에 있는 원래의 절과 주요 건물은 1865년에 불에 타 버렸으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건되었습니다. 현재의 절의 경내는 주변에 많이 모이는 소바(메밀국수)집을 포함해 약 6만 6천평방미터(6아르)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주요 불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문(山門) :** 이 문은 진다이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며 1865년 큰 화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695년에 지어졌으며 그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해 약의문(藥醫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2022년에 초가 지붕 부분의 문화재 수리를 통해 아름답게 재탄생하였습니다.
- 본당(本堂) :** 본당은 1925년에 지어졌습니다. 보관 아미타여래좌상(寶冠 阿彌陀如來座像)은 가마쿠라 시대(13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런 부처로서는 드문 디자인입니다. 본당 앞에는 1833년에 지어진 향당인 조코로(常香樓)가 있는데, 지붕 근처에 있는 상처는 1865년의 화재를 가까스로 면했을 때의 생긴 것입니다.
- 간잔 다이시도(元三大師堂) :** 이 사당은 18세기에 천태종 엔랴쿠지 주지를 지낸 간잔지케이(元三慈惠) 대사를 추모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현존하는 절은 1867년에 재건된 것입니다. 매우 귀중한 간진지케이대사의 상은 14세기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유서 깊은 상은 자비의 상징이자 여의륜관음보살의 화신입니다(보살이란 부처 아래의 계급에 있는 불교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찾아와 작은 목제 호마찰에 탄원을 쓰거나 여러 가지 고민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부적을 입수합니다. 이것은 액제신앙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불은 높이 2미터의 좌상입니다. 25년마다 스님의 기일에 공개 전시됩니다. 사후 1025주년은 2009년에 기념되었습니다. 다음 전시는 2034년에 진행됩니다.
- 샤카도(釈迦堂) :** 이곳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017년에 국보로 지정되어 동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국보불인 석가여래상입니다. 이 온화한 부처님(상)은 1909년에 원삼대사당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동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외양이나 사용되고 있는 소재로 보아 7세기의 작품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절보다 훨씬 오래된 셈입니다. 진다이지 경내에 있었던 이유는 아직도 깊은 수수께끼에 싸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의 중요 문화재인 범종입니다. 14세기의 오래된 구리 종으로 도쿄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것입니다.

추천 산책 코스 : 산문 → 종루 → 조코로(常香樓) → 본당 → 간잔 다이시도(元三大師堂) → 샤카도(釈迦堂) → 카이산도(開山堂) → 엔메이(延命)관음 → 진자(深沙) 대왕당 → 소바모리광음